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⑦

2014년 11월 5일(수), 오후 2~4시

김해왜성(金海倭城)의 축성과 그 의의

나 동 욱

부산 근대역사관장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시민역사강좌 <제 12기 가야학아카데미>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⑦

김해왜성의 축성과 그 의의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621-900)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핸드디자인 / 070-7380-0641

1. 왜성의 축조

“왜성(倭城)”은 선조25(1592)년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그들의 근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왜군 내의 타군과의 연락, 아군의 공격에 대비코자 국내에 축성한 성¹⁾이다. 임진왜란 때 전선(戰線)의 확장에 동반하여 보급로의 확보를 위해 축성된 성 [繫城(傳城)²⁾]이라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행차를 위해 평양, 한성, 부산에 걸쳐 하루 일정거리마다 쌓았던 것으로 알려진 “고요쇼(御座所)”, 일부 음성 가운데 보이는 일본식 성벽³⁾도 광의(廣義)의 왜성에 포함된다.

1592년 4월 14일 부산진성과 동래성을 함락시킨 왜군은 곧바로 전선의 확보와 물자 보급을 위하여 부산왜성의 축조를 시작으로 선조25(1592)년 11월경에는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평양 등지에 축성하고, 우키다 히테이에(宇喜多秀家)는 한성(漢城)의 남산에 축성하였다. 그러나 선조25(1592)년 7월 8일 한산도해전, 9월 1일 부산포해전 등 이순신장군을 중심으로 한 조선수군의 활약과 의병의 봉기, 선조26(1593)년 1월 참전한 조·명 연합군의 반격에 기기 시작한 왜군은 1593년 5월경 그들의 상륙 임호를 위하여 모리 데루모토(毛利輝元) 등의 장수로 하여금 부산을 기점으로 경상도 서생포에서 거제도에 이르기까지 남해안 중요 지점에 왜성을 축조하기 이르렀다. 이때 축조한 성은 서생포왜성·임랑포왜성·기장왜성·동래왜성·부산왜성과 그 지성(支城, 迫門口倭城, 椎木島城)·구포왜

1) “御仕置之城”이라고도 칭함. 城郭談話會(1979). 『倭城の研究』 I~V.

2) 『朝鮮渡海日記』에 조선지역의 재번(在番) 장수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음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신성(新城)은 새로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지명은 다음과 같다.

朝鮮槓島(絶影島)·同石山·釜山海浦·登萊(東萊)·梁山·安湯(密陽)·新城·大丘(大邱)·新城·仁同·開寧·善山·新城·尙州·咸昌·聞慶·新城·新城·忠州·陰許(陰城)·竹山·新城·湯賀(陽智)·新城·新城·果川·新城·新城·開城府·新城·平山·新城·鳳山·黃州·中和·平壤·順安·肅川·定州·郭山·宣州·鐵山·龍山·義州. . .

3) 太田秀春(平成13年).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日本軍の築城觀の變遷について-朝鮮邑城の利用から倭城築城への過程を中心に-, 朝鮮學報 81輯.

성(甘同浦倭城)·김해왜성(竹島倭城)과 그 지성(新畚·馬沙倭城)·가덕도왜성과 그지성(訥次倭城), 안골포왜성·웅천왜성과 그 지성(子馬·明洞倭城)·영등포왜성·장문포왜성·송진포왜성 등 20여성⁴⁾이다.

임진왜란의 강화교섭이 성립된 후에는 부산·동래·기장·웅천·김해·가덕도 등 6개 왜성에 약간의 왜군을 잔류시키고 대부분은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나, 강화교섭이 결렬되면서 선조30(1597)년 봄에 재차 침공하여 정유재란을 일으켰다. 이때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등은 부산포·안골포·가덕도·죽도(김해)·서생포 등지의 옛 왜성을 다시 점령하고, 왜의 수군은 웅천왜성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울산에서부터 순천사이에 울산왜성을 비롯한 양산왜성(甌山倭城)·견내량왜성(倭城洞城)·마산왜성(昌原倭城)·고성왜성·사천왜성·남해왜성·순천왜성 등 8개 왜성을 신축하였다⁵⁾.

II. 기록에 보이는 김해왜성

김해왜성은 “죽도왜성(竹島倭城)”으로도 불리웠으며 죽도왜성지는 부산광역시기념물 제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측 사료에서는 “きんむい(金海)の城”으로 불렸으며, 「同はしろ」라 하여 인근의 주촌면 신담왜성(新畚倭城)과 생림면 마사왜성(馬沙倭城), 그리고 구포왜성(龜浦倭城)이 김해왜성의 지성(支城, 端城)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불암창(佛岩倉)지역에도 왜군과 관련한 기록이 보이는데⁶⁾, 이들은 김해읍성과 김해왜성의 중간거점으로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김해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595년 2월 15일 진 유격의 접반사 이시발(李時發)이 김해왜성의 규모에 대해

4) 韓日文化研究所(1961), 『경남의 왜성지』에는 18개성으로 되어 있음.

5) 韓日文化研究所, 앞의 책.

6) ① 『壬辰狀草』萬曆 21년 8월 10일 啓本 「佛岩滄屯賊段置, 亦爲造幕, 未定其數, 船隻段, 同岩 下左辺以五里許至列泊」.

② 『朝鮮役從軍日記』, 「繫舟於金海府東十里之佛岩江矣」.

“진영의 기지는 넓이가 평양 정도나 되었으며, 3면이 강에 임해 목성(木城)으로 둘러싸고 토성(土城)으로 거듭 쌓은 다음 안에는 석성(石城)을 쌓았다. 또한, 높고 웅장한 누각은 현란할 정도로 화려하고 크고 작은 토우(土宇)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한 조각 공지도 없는 것 같았으며, 규모가 만여 명의 군사를 수용할 만하였다. 성 밑에는 수도 없이 크고 작은 선박들이 줄지어 매어 있었고 왜적에게 붙어있는 우리 백성들은 성밖에 막을 치고 곳곳에서 둔전(屯田)을 짓고 고기를 잡아 생활을 하였다”고 보고 하였다⁷⁾. 또한, 김해왜성의 왜장은 우리나라말로 강강노가미(江江老加未=鍋島加賀)로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주둔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

강화교섭으로 인한 철수와 관련하여 1595(선조28)년 7월 14일 권율이 왜군의 동향에 대해 치계하였는데 “덕교(德橋)에 있는 왜인의 반은 김해부 성내로, 반은 죽도진(竹島陣)으로 나누어 들여보냈다고 하면서 철수와 관련하여 방옥(房屋)을 불사르거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일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1595년 7월 24일 접대 도감(接待都監)이 왜영(倭營)의 형세에 대해 보고하였는데 김해의 3영 중 덕교(德橋)에 있는 직정(直政)의 진영은 또한 모두 불태웠으나 김해 부중(金海府中)의 진영과 죽도(竹島)의 진영은 철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보인다¹⁰⁾. 한편, 정유재란 때인 1597년 4월 15일 기사에서 나베시

7) 『선조실록』 28(1595)년 2월 10일

「陳遊擊接伴使李時發書啓…正月十二日 早隨遊擊 自榆川起身 過密陽 泊金海 竹島營 小將 來見於船上 請飯 仍宿其所. 其營基址 廣比平壤一般 三面臨江 周以木城 重以土城 內築石城 高臺傑閣 粉壁絢爛 大小土宇 彌滿 櫓比 似無一片空地 量有萬餘兵容接矣. 大小船隻 列泊城下 不記其數. 有投付我民 結幕城外 處處屯結 捉魚爲生矣」

8) 『선조실록』 28년(1595) 2월 10일

「…各營倭將姓名, 欲爲聞知, 而皆從其國鄉談, 合字書出. 竹島江江者加未 甘同浦也郎加臥…」

9) 『선조실록』 28년(1595) 7월 14일

「石尙書差官稱云者 …只德橋小陣之倭 一半則金海府城內 一半則竹島陣分入 而亦無燒房屋 乘船開洋之事」

10) 『선조실록』 28년(1595) 7월 24일

「接待都監啓曰…金海三營內 德橋直政之營 亦已燒盡 而府中及竹島未撤」

마 나오시게의 병선 60척이 죽도를 다시 점령한 기사가 보인다¹¹⁾. 11월 10일 제독 총병부(提督總兵府)에 이자(移咨)하고 적군의 동태와 대비책, 우리 장수의 전과를 알리는 기사에서 죽도(竹島)·천성(天城)·가덕(加德) 등에도 왜군의 근거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

III. 김해왜성의 유구 현황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 죽림리 787번지 일대에 위치하는 김해왜성은 김해평야가 한눈에 보이는 곳으로, 녹산 방향의 바다쪽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길목에 해당한다. 낙동강 본류에 위치하는 양산왜성, 호포왜성, 구포왜성과 함께 서낙동강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일본 사가한(佐賀藩)의 번주(藩主)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와 나베시마 가츠시게(鍋島勝茂) 부자(父子)가 1593년 7월경 쌓은 것으로¹³⁾ 둘레 1,200m 정도로 알려져 있다¹⁴⁾. 김해부의 안산인 서낙동강변의 해발 47.5m의 오봉산(五峰山) 봉우리를 중심으로 주곽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 구릉에 제1 외성, 동쪽 구릉에 제2 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해왜성의 중심부는 강변의 독립야산을 이용하여 산꼭대기를 3단으로 깎아 연곽식(連郭式)으로 동서 460m, 남북 100m 규모의 성벽을 다중으로 축조하였다. 성벽은 대체로 5~8m 높이로 잔존하고 화강암과 잡석제의 자연할석을 이용, 난적(亂積)쌓기를 하였다. 성벽의 모퉁이서리는 산기쁘미(算木積, 엇갈려쌓기) 하였다. 성벽 요소(要所)에 글곡(橫矢掛り)을 주거나 요코야 마스가타(橫矢枅形, 雉城)를

11) 『선조실록』 30년(1597) 4월 15일 「…豐茂守又領兵船六十餘隻，來據竹島舊壘…」

12) 『선조실록』 30년(1597) 11월 10일

「移咨于提督總兵府曰 朝鮮國王爲緊急倭情事. 倭賊自西生浦 以及釜山安骨等浦 橫據慶尙左右道沿海要害 列屯相望 水路則又有竹島天城加德等處賊屯 方其諸處之賊 發以進搶也. 水陸之勢俱急」

13) 佐賀縣立圖書館編, 『佐賀縣史料集成』, 古文書編第3卷, 鍋島家文書 56호

14) 釜山直轄市史編纂委員會(1991), 『부산시사』.

두어 전투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다. 북쪽 성벽에서만 5개의 요코야 마스가타가 확인되며 주곽의 서남쪽의 경우에는 동서 11m, 남북 4.5m 정도 규모의 방형으로 성벽의 경사도는 53도~70도를 이루고 있다. 모서리는 산기찻마 수법이 보인다. 중심부 주곽의 동쪽 아래에는 마스가타 고구치(柵形虎口, 사각옹성형 문지)가 있으며, 문지와 접하여 약간 높은 대지에 왜성 내 중심건물인 천수각지(天守閣址) 추정되는 건물지가 있다. 이 주곽의 동쪽으로는 곽(廓, 曲輪)이 계속되는데 현재 문수암과 민가가 들어서 있으며 주변에서 많은 기와편이 채집된다. 주곽의 동쪽에는 야구라다이(櫓臺, 누각건물)가 남북 2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동북쪽의 것은 동서 9m, 남북 11m 규모이다. 그 외곽으로는 여러 곽이 단을 이루는데 강변의 선창까지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⁵⁾. 주곽의 서쪽으로는 2개의 대형 곽이 계속된다. 그 양쪽의 아래쪽에도 외곽을 둘러 곽을 조성하였으며, 각 곽은 모두 계단상의 지형을 이루다가 마지막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서북쪽 끝 높은 대지에는 야구라다이가, 그바깥으로 차단용 호리끼리(堀切, 해자)가 배치되어 있다.

제1외성의 주곽부는 서쪽으로 길게 대지상을 이루고 있어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주곽의 중심부에는 윗면이 수평을 이루는 암반이 형성되어 있어 건물지로 추정되며 외벽 쪽으로는 석축이 보이고 있다. 주곽의 서남쪽과 동북 아래쪽은 계단상의 지형을 이루며 서쪽으로 길게 고시쿠르와(腰曲輪, 세장형 곽) 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곽부의 서쪽 끝에도 2~3개소의 곽이 조성되어 있다. 북쪽 외곽에 호구(虎口, 문지)로 추정되는 석축 모서리도 있다. 발굴조사에서 모두 8개의 곽이 조사되었는데 제2·4곽에서는 굴립주혈(掘立柱穴)이, 제3곽에서는 1~1.5m 간격의 목책주혈(木柵柱穴)이, 제7곽에도 목책 추정 주혈들과 제9곽에서는 고구치가 조사되었다. 또한, 상평통보, 쇠낫, 도기편, 백자편, 기와편 등이 출토되었다¹⁶⁾.

15) 高田 徹(1999). 「金海 竹島倭城の 遺構と 遺物・繩張り」, 『倭城の研究』 第3號.

16) 釜山廣域市·東亞大學校博物館(2006.11). 江西 竹島城址.

Ⅳ. 김해왜성의 축성사적 의의

동남해안지역에 축조된 왜성의 입지적 특징은 선박 출입이 편리한 남해안 요소(要所)의 강이나 바다에서 200~500m 거리에 표고 10m~220m의 독립된 구릉을 택하여 부근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구릉을 피하여 주로 평산성식(平山城式)으로 축조되었다. 김해왜성의 경우도 녹산 방향의 바다 쪽에서 김해로 들어오는 길목인 독립된 오봉산에 위치하는데, 당시 김해지역은 낙동강 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교통 결절지역으로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왜성을 축조하였으며 신담왜성(新沓倭城)과 낙동강 본류 인근에 마사왜성(馬沙倭城), 구포왜성(龜浦倭城)을 지성으로 배치하였다.

임진왜란 때 강화교섭이 성립된 후 왜군은 대부분 왜성을 파성(破城)하고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나 김해를 비롯한 6개의 왜성은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여전히 왜군이 주둔하였다. 1595년 11월 기록에는 김해읍성·김해왜성과 지성에서, 일본군에 의한 재지민의 지배·수세체제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보이는데 김해부(읍성)에는 2~300명의 수조(收租)병사를 두었으며, 장수(將帥)가 김해왜성과 왕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이와 관련하여 김해왜성의 주위에서는 일본식 성곽에서 보는 대규모적인 성하촌[城下町]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해읍성에서 도시기능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군사적 요해성과 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왜성구축에 관한 갈등으로 이해하는 이도 있다¹⁸⁾.

17) 『선조실록』 28(1595)년 11월 2일조 「訓鍊主簿金景祥書啓…十三日 與黃愼 進于梁山地龍塘 探審賊勢…金海地丁飛乙山探審 則我國人民三十餘戶入接 又有倭賊三十餘名 作奮四十餘斗落種 時方秋收矣. 十四日 到德島探審 則我國人家百餘戶入接 又有伏兵倭六七人留在矣…金海府探審 則城中倭等 合于竹島 只有收租倭二三百 將帥則劉汝文 出入竹島云.」 12) 『선조실록』 30년(1597) 11월 10일 「移咨于提督總兵府曰 朝鮮國王爲緊急倭情事. 倭賊自西生浦 以及釜山安骨等浦 橫據慶尙左右道沿海要害 列屯相望 水路則又有竹島天城加德等處賊屯 方其諸處之賊 發以進搶也. 水陸之勢俱急.」

18) 高田 徹(1999), 金海竹島倭城의 遺構と 遺物, 『倭城の研究』 第3号, 110.

김해왜성에는 다른 왜성과는 달리 요코야 마스가타〔橫矢枘形, 雉城〕가 많이 설치되었다. 대부분 북쪽 외곽에 설치되었는데 일본성에서 침공하는 적에 대하여 측면으로부터 공격을 하는 요코야 마스가타는 조선의 읍성이나 진성의 기본 방어시설로 설치된 치성과 동일한 것으로 서생포왜성, 구포왜성, 웅천왜성, 순천왜성 등의 외곽에서도 확인된다. 왜성에 설치된 이 구조물은 당시 조선성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치성(雉城)에서 영향 받은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 일본성곽에 있어서는 성벽의 굴곡에 맞춰 다양한 요코야〔橫矢, 측면 공격을 할수 있도록 성벽에 굴곡을 준 구조물〕의 기능을 가진 각종 구조물의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왜성 이후 조선성의 축성술 변화가 보이는데 왜란 후 왕명이나 비변사와 병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왜성제의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경성읍성, 화성, 죽주산성, 남한산성 등에서의 일본식 성벽의 축성사례가 확인되었다. 일본식 성제의 영향으로 성벽이나 치의 양 모서리를 규(圭, 홀)형 형태로 축성하였으며, 남한산성 웅성에서는 왜성과 일본성곽에서 보이는 성벽의 다각화(多角化)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화읍성이나 상당산성, 동래읍성, 통영성지 등 근세 산성의 성벽 축조수법이 왜성과 비슷한 점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왜성의 영향으로 축조수법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성의 경우 지방의 다이묘〔大名〕들은 나고야성〔名護屋城〕과 왜성의 축성과정, 세키가하라전투〔關ヶ原の戦い, 1600〕등에서 터득한 축성기술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성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제12기 가야학아카데미 - 김해사람들의 삶과 문화」 교육과정

- 일시 : 2014.9.24.~11.26. 매주 수, 오후 2시~4시(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비고
1	9.24.	김해의 한글학자 눈피 허웅	하치근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2	10.1.	김해의 불교	조원영	합천박물관 학예연구사	
3	10.8.	청동기시대의 김해	배진성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4	10.15.	낙동강의 선물, 역사도시 김해	김덕현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5	10.22.	<답사> 가야문화권 박물관 답사	송원영	대성동박물관 학예연구사	
6	10.29.	조선시대 김해지역의 유교문화	김훈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7	11.5.	김해왜성의 축성과 그 의의	나동욱	부산근대역사관장	
8	11.12.	이학규의 시문을 통해 본 김해의 옛 모습	김성진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9	11.19.	김해 제염업의 역사	유승훈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사	
10	11.26.	김해의 지명에 대하여	민궁기	창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강의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